



변화와 회원증강으로 New Rotary 시대를 연다

2004년 서울로타리클럽에 입회하여 2011-12년 클럽 회장을 맡아 마닐라 로타리클럽과 오사카 로타리클럽을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도 하여 국제관계를 깊이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어쩌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현대화시킨 거목 동국 이순동 총재님과 인연이 되어 1지역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너무 무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2017-18년 New Rotary 시대”를 열겠다는 큰 뜻에 적극 협조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1지역은 한국 최초의 클럽인 서울로타리를 포함하여 서울용산, 서울남술, 서울신라, 서울장충, 서울코암, 서울뉴광진, 서울인터코리아 8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1지역의 모든 클럽 회장님들이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는 15% 회원증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각 클럽에서는 회원증강을 위하여 기존회원의 확고한 유지와 신입회원 영입과 위성클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로는 클럽 운영



1지역 대표 이홍수(서울RC)

패턴의 혁신을 통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는 1) “Family Together 운영방침”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임을 조성하고, 회원과 회원 가족의 조사에 조화와 조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 클럽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카카오톡과, 1지역 공용밴드를 더욱 활성화시켜 1지역 회원 모두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또 지역 내 클럽간의 유대와 회원간의 인지 폭을 넓히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2~3개 클럽씩 공동 주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1지역 회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New Rotary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로타리클럽

한국 최초의 로타리클럽으로 90년,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서울RC 회장 한태숙

일에 국제로타리에 가입하여 1927년 11월 10일에 공식 현장을 받았고, 국제로타리 클럽번호 2703이 부여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마닐라와 동경 다음으로 생긴 클럽이다.

창립회원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17명은 일본인, 4명은 한국인이었다. 4명의 한국인은 김성수(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설립자), 한상용(조선화재 총재), 용용 김(서울신문 편집장), 백상규였으며, 회원은 1934년까지 5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차 세계대전 중 1940년 일본의 군사 압력으로 해산되어서 한국에 공식 로타리클럽이 없었지만 “수요일 클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많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맥을 이었으며, 지금도 주회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광복 이후 서울로타리클럽은 1949년 3월 29일 38명의 회

원들이 모여 클럽을 재건하였으며, 당시 서울로타리클럽 창립 회장은 이승만 정부 출범 당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최순주 박사, 부회장은 이승만, 이영설이었다. 하지만 서울로타리클럽이 다시 탄생한 지 1년 후, 6·25 전쟁 발발과 그 혼란으로 인해 회원들은 일시적으로 부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서울로타리클럽 회원들은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1952년 부산로타리클럽의 재건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한양, 대전, 남술, 장충, 코암 등 여러 클럽을 후원하여 클럽 창립을 도왔으며, 현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첫째 주 수요일 점심에 주회를 가지며, 매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로 주회를 진행하는 클럽이다.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35세 미만의 서울 영리터스 클럽이 위성클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화여대 로타랙트와 외국어대학 로타랙트를 후원하고 경희 고등학교 인터랙트를 후원하고 있다.

2017년 11월 10일은 9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며, 90주년 행사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

국제문화교류, 회원증강, 봉사활동 증대로 새롭게 도약한다



위: 2017-18년도 회장 이취임주회(2017. 7. 10)

우: 자매결연한 대만 타이페이로얄 로타리클럽 방문(2017. 6. 15)



서울뉴광진RC 회장 유상재

서울뉴 광진로타리클럽은 2010년 6월 창립된 이래 지역 노인복지관,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로타리의 기본정신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또한

2015년 대만 타이페이로얄 로타리클럽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하여 회원간 친목도모뿐 아니라 민간외교관으로서 양국간 신뢰증진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18명의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 회원이 타이페이로얄 로타리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며 더욱 친밀하고 우호적인 상호 친목관계를 이루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20여 명의 대만 회원들이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의 초청으로 제주도 문화교류 차원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7-18년도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뛰어나고 봉사활동과 회원간 친목증대에 더욱 관심과 열성이 있는 회원들을 위주로 회원증강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조직, 새로운 회원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 2017-18년 활동 계획

1. PHF 5구좌 / 회원증강 40명 목표
2. 뉴광진 골프클럽 활성화로 로타리클럽 회원증강에 기여
3. 대만 타이페이로얄 로타리클럽 한국방문으로 교류증대 (2017년 11월)
4.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남산원, 장봉헤림원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



서울코암로타리클럽

“Go Together KOAM”, 창립 10주년 맞는 즐겁고 건강한 모임



서울코암RC 회장 이영준

2007년 4월 14일 창립한 서울코암 로타리클럽은 햇수로 10년을 맞이한 로타리 클럽으로 지난 2017년 4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코암’의 뜻이 Korea America 의 준말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로타리 정신을 중심으로 모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클럽 평균 나이는 47세이고 주회 때도 격 없이 모여 명사 강의를 듣기도 하고 친목을 중심으로 맛집 체험을 하고 지역별로 소모임도 활성화 되어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암은 “Go Together KOAM” 이라는 기치 아래 서로를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참여를 즐기는 건강한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017-18년 활동 계획

1. 회원증강
 - 회원의 관리를 통해 기존 회원을 유지하고, 탈회 회원의 재영입과 새로운 신입회원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5명 증강 목표
2.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해 국내, 해외 리트리트 실시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클럽 분위기 도모
3. 직장주회 개최
 - 회원 초청의 직장주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우의를 도모 (년 2회 예정)
4. 봉사활동 계획
 - 1) 애란원(년 2회 실시)
 - 내용 :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지원
 - 기부 : 지원금과 지원물품 및 바자회 수익금 전액
 - 2) 사랑의 달팽이
 - 내용 : 난청 어린이 1인을 매칭하여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 기부 : 수술 치료비용 5백만원 기부 및 격려